

이 심
한국잡지협회 회장 겸 주택문화사 발행인
by Lee Sim

점점 잊혀져만 가는 한옥에 대한 단상(斷想)

Random Thoughts on Your Forgotten Hanoks

주거문화를 다루는 전문 언론사를 30여년 이끌어 오면서 수많은 건축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그 때마다 나름대로 느낀 바는 주택만큼 어렵고, 또 새로운 가능성과 변수를 지닌 건축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공간과 표현 욕구를 드러내고 자연과의 관계까지 있는 주택설계가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한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만큼 우수한 건축물도 많지만, 일면 도시적 특성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로만 존재하기가 쉽다. 그에 비해 주택은 주거라는 확연한 성격을 띠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생성변화의 과정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오늘날 주택은 단지 부를 늘리기 위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1인당 10평 정도의 공간이 인성(人性)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데 끼닥 없이 넓고 큰 집, 화려하고, 웅장한 집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들에게 집은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척도이거나 아픈 곳을 가리는 장소로서의 역할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현학(玄學)이 곧 지혜의 드러남이 아니듯이, 화려하고 웅장한 집이라 해서 충실한 삶을 담고 있으리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구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생활 속에서 그러한 주택의 형태와 기능 변화는 물론 멋을 담고 찾아내는 건축적 맥락을 투영해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는 우리의 한옥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싶다.

우리는 '한복', '한식'과 같이 '한옥'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한국의복이나 한국음식처럼 한국주택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었지만, 여기에는 한국식이 아닌 것과 대비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단순히 한옥을 '한국주택'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 같다. 한국 땅에는 한옥도 양옥도 있을 수 있으니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더욱이 한국인이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한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 지은 주택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주택에 대하여 '이것은 한국식이고 저것은 한국식과 서양식이 결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어디에 있건, 누가 지었건, 한국식으로 지은 주택을 한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연을 관조하며 그곳에서 생의 유연함을 배웠던 한국인들은 한옥을 지을 때 반드시 주위의 경관요소와 어울리도록 결코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궁색하지 않은 단정한 집을 지었다. 기본 향을 정하는 핵심으로 건물마다 고유한 안대(案帶 : 바라보는 산 또는 봉우리)를 보고 사량채와 마루 등을 정했는데, 받아들이고 끌어드리는 볼거리를 찾은 옛 사람의 지혜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리곤 집 주위에 산재해 있는 바람, 풀 그리고 하늘까지 포함한 모든 자연요소를 포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자연을 살리고 인공을 겸양하는 우리의 정신이 한옥에는 깊게 배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루와 구들의 탁월한 기능, 빛을 조절하는 깊은 처마, 추위와 더위에 대응하는 자연조절기법 등 아파트라는 서구의 주거형태에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 느새 구들 아랫목의 따끈함보다는 침대의 폭신함에 익숙해져 버렸다. 물론 지금의 주거가 기술과 기능면에서는 발전했고 편리하지만, 그보다도 한옥에 담긴 깊은 정서는 잃어

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한옥은 한마디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에 중심을 둔 주거공간이었다. 시대가 지나 모습과 기능은 변화하거나 사라졌지만, 그 고유한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한옥을 우리는 단지 '옛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담아온 한옥에서 그 가치를 다시금 찾아내고 현대적 계승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민들레 한포기 조차 보살핌이 미치는 집

마음의 영상으로 남아 있는 유년시절의 집. 빗장을 지를 필요가 없는 문을 밀면 한가한 뜨락에 가득히 쏟아지는 햇살, 성큼 집안으로 들어서면 가만히 움츠려 있던 고즈넉한 정적대신 들어앉은 평화로움과 아늑함이 그립다. 바로 그러한 집은 홀로 존재치 않으며, 혼자 불협화음을 내지도 않고, 인간 혹은 자연과 어우러져 그 기쁨을 드러낸다. 빈객이라도 정성껏 맞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담긴 집, 마당 한구석에 어쩌다 핀 민들레 한 포기조차 보살핌이 미칠 수 있는 집, 그것은 공간의 문제를 넘어 생활의 문제이기도 했다.

살기 좋은 집의 의미는 식당, 화장실, 방 등이 거실을 둘러싸면서 얼굴만 돌리고 손만 내밀면 접근되는 기능적 구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소 거주장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나가서 대문을 열어주고, 손으로 문을 여닫으며, 좀 일어서서 걸어가 직접 얘기하고, 빗자루로 쓸고 걸레도 훑치면서 움직이며 생각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바로 한옥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이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일정한 방식이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살림집들이 지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현대식 주거문화에 의해 현대식 주택들이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들

을 한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대식 주택들은 산업화 이후 서구에서 들어온 기술이나 방법 등 외국의 건축지식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한국식이라고 할 만한 고유한 방식을 계승하고 접목하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옥을 전승함에 있어 단순히 골동품처럼 수집하고 보존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한옥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거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날의 방법으로 되살려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대마다 당연한 시대적 상황과 가치가 있으므로 그 구성원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하다면 굳이 외국의 것이라 하여 버려질 것도 아니고, 과거의 우리 것이라 하여 무조건 고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역사가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듯 현재의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상황과 가치관에 적합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우리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방법론을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주거문화에 의한 결과물이며, 우리는 한옥을 통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한옥 속에 담겨진 지속적인 정서와 가치들을 재조명하고 이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되살려 내는 것이 주거문화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창달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